



바람으로부터 반려견 눈 건강 챙기기



눈병 ① 결막염

일상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결막염
눈을 자주 깜박·찡그린다면 의심

오늘은 안구질환 중 일상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접하는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결막염은 말 그대로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결막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으로 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물의 일부성분인 점액을 만들고 분비하며, 또한 혈관과 림프조직이 외부 환경과 접하면서 만나는 여러 세균 등으로 부터 눈을 보호한다. 결막은 투명하고 얇은 막으로 흔히 자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흰자는 결막 뒤 하얀 조직인 공막이 비치기 때문이다). 검은자에 해당하는 곳이 각막이고 각막이 끝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흰자(공막) 위를 지나 눈꺼풀 안쪽까지 이어져 있다. 결막은 위치에 따라 안구결막, 안검결막, 원개부 결막으로 나뉜다. 그중 안검결막과 원개부 결막에 주로 염증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일 때 눈꺼풀을 살짝 들춰 보면 선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결막염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라지는 질환 중 하나이다. 가볍게 생긴

결막염은 보호자가 모르는 사이 잠깐 진행하고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자가 치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자신의 반려견과 사랑에 폭 빠져 눈빛교환을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는 보호자라면 잠깐 왔다 사라지는 눈병도 놓치지 않을 테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눈의 이상을 감지한 초기에는 안구를 인공눈물 따위로 살짝 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 후에는 말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계속 불편해 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만 한다. 자칫 강아지가 눈 부위가 따갑거나 또는 간지러움으로 바닥에 눈을 비비거나 발로 긁는 경우 각막에 상처가 나고 예기치 못한 안질환으로 애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막염의 증상으로는 눈을 뽼크하듯이 자주 찡그리거나 깜빡거리며, 가려움으로 눈을 앞발로 자주 문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막 안쪽(눈꺼풀 안쪽)은 평소에는 선한 분홍색이나 염증이 발생하면 붉게 변한다. 또한 염증이 심해지면 원자부위의 결막에도 충혈이 되며, 눈곱이 점조성으로, 노란색 또는 초록색을 띄며 발생하고 눈꺼풀이 눈에 띄게 붓기도 한다.

결막염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자외선, 바람, 열, 먼지, 이물, 안검첨모의 이상 등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이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단연 바람이다. 우리 강아지들의 눈높이는 사람의 눈높이에 비해서 훨씬 낮아서 그곳에서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돌풍에 견줄 수 있다. 특히 이곳 제 주도는 '바람의 섬'이 아닌가? 모래 등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물과 같이 빠져나오지 못

한다면 그 이물질은 결막에 작은 생체기를 만들고 그곳을 통해서 사방에서 떠돌고 있던 무지막지한 세균덩어리들이 들어올 테니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그 외에 디스토퍼, 전염성 간염 등 바이러스에 의한 속발, 각종 세균, 진균, 기생충 등의 감염병에 의한 것이 있다. 이중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은 전염성이 강하다. 또한 산, 알칼리 등 화학적 자극(일상에서는 샴푸 등에 의한 자극이 제일 많을 것이다.)에 의해서도 생긴다. 그리고 꽃가루, 먼지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건관선염, 녹내장, 건성 각결막염 등이 결막염을 유발한다.

보호자들의 눈에 자신들의 강아지가 안구에 이상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대부분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이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결막염이 진행되면 각막염으로 발전해 상당한 통증을 겪게 되며 각막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막염의 치료는 우선 원발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항생제와 안약을 병행하게 되며, 3-5일의 관리로 다시 건강한 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산책 후 눈을 살펴보고 안구세정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눈물이 차올라서 고갤 들어

'탐간: 매버릭'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개봉 4주 차에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하며 5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파죽지세의 흥행세다. 무엇이 이 작품을 보고 난 관객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들었을까.

'탐간: 매버릭'은 마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같은 기시감을 주는 영웅담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 아니다. 1986년에 선보인 '탐간'을 기반으로 고전 블러버스터의 멋과 흥을 지금 시대에 맞게 선보인 '탐간: 매버릭'은 기술의 진보와 극장의 시스템이 차려놓은 밥상에 올려진 빈티지한 옥수저에 가깝다. 새것은 아니지만 새것보다 더 귀한, 세월이 수놓은 클래식의 품미가 영화 전반에 흐른다. 다소 전형적이고 일면 감정적 과잉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도 느끼하지 않은 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솔직함과 정직함 덕이다. 낡은 비행기에 오르는 늙은 조종사의 투혼은 그 자체로 숙연한 감동인 동시에 어떤 슈퍼히어로의 초능력보다도 다른 짜릿한 쾌감을 전해 준다. '탐간: 매버릭'은 관객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감동과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영화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내는 배우가 전반에 이어 36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톰 크루즈라는 것 또한 압도적이다. 긴 세월 동안 매력적인 아이코닉한 전 세계 영화팬을 설레게 한 슈퍼스타인 동시에 성실한 직업인이었던 톰 크루즈는 이 작품과 캐릭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고유명사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하는 묵심과 고뇌 그리고 그 주름 위에 새겨진 여전히 매력적인 그의 미소는 곱고 뜨겁게 나이든 배우의 눈부



영화 '탐간: 매버릭'

신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탐간: 매버릭'은 일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판타지 영화이기도 하다. 젊음의 한복판에서 강철 같은 육체와 비상한 두뇌로 세상과 맞서던 왕성한 혈기에 대한 로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이와 세월 앞에서 열정 투성이 자신과 예정된 이별을 겪게 된다. 실무직에서 관리직으로, 현장에서 데스크로 위치를 바꿨을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끄덕이는 동시에 '나 아직 건재해!'라는 고요 속의 외침을 부르짖는 전환점은 모두에게 공평한 순간이기도 하다. '탐간: 매버릭'의 주인공 매버릭은 그 전환점 마지막 10의 속도로 뚝고 지나가는 인물이다.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시선 앞에서도 기어코와 마침내를 해내는 인물. 그것이 객기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인물, 매버릭은 평생 직업을 꿈꾸는 이들 앞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판타지의 현신이다.

어쩌면 올해 더 많은 흥행하고 근사한 영화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탐간: 매버릭'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영화를 만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과 두 시간 동안 누리고 느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정성스러운 보상이 이 영화 속에 거의 다 있다.

<진영현 독립영화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오영훈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좌읍단체협의회 회장 김기범

주민자치위원장 김기범, 노인회장 고태연, 이장협의회장 김병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김승균, 바르게살기위원장 김두남, 새마을부녀회장 김희정, 연합청년회장 한성홍,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장 김태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성익,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김현영, 장애인자립지원협의회장 박재건, 구좌라이온스클럽회장 채영배, 구좌로터리클럽회장 채상선, 구좌청년회의소 회장 고대환, 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김상철, 여성농업경영인구좌읍회장 고영미, 농촌지도자구좌읍회장 이성진, 구좌읍농민회장 김수길, 어촌계장협의회장 고영범, 해녀회장 강창하, 민속보존회장 홍정숙, 소비자교육중앙회구좌분회회장 홍영애, 구좌합창단 단무장 김순영, 친환경농업인구좌읍협의회장 한태호, 지역자율방재단장 이달우, 문주관적십자봉사회장 이금자, 구좌읍기술지원봉사대장 김병용, 재향군인회장 김영희

수 상

새농민상



조창숙·조은호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 한경면회

회장 김성은 외 회원 일동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본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주한빛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정실 L 외 회원 일동